

2019-10-04 금 지공여행 제17차 마석 모란공원

퇴근하여 지하철을 타려다가 관리비 고지서를 만들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회사에 가서 작업하는데 옆에서 배소장이 너무나 심하게 잔소리를 하니 짜증이 난다

그래도 참고 작업을 했다.

결의서 소모품 주차비 등은 처음 출력이라 실수 연발

그토록 지적질을 하고 싶은가? 이해가 안되고 오해만 된다. 짜아아증 난다.

자기가 편하려고 시킨 일

작업 내용을 설명해도 흘려버리곤 글자 크기나 색깔 등만 지적한다. 답답
며칠후엔 또 내용도 바꾸라고 하겠지...

그땐 나도 까먹어 새로 작업해야 될터이니 지금 의견을 모아 완성시키면 좋으련만...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적질은 공통적인가?

힘들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구나.

일찍부터 사람을 싫어하고 단점만을 찾아내고 피하기만 한 것들도 문제

이해하고 포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았으련만...

괴롭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 틈에서 고민만 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는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뭔가 돌파구를 찾자구나.

점심을 갑오징어와 막걸리를 먹고 마시려 용을 같이 남성역으로 걸으며 대화하였고 맛있게 먹
으며 또 대화를 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용은 집으로 걸어가고 난 지평역을 향해 전철로 달리며 멋지게 일기를 쓴다

조오타~~~~~

상봉역으로 가면서 마석으로 방향을 바꾸다. 나라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힘든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싶어졌다.

어떤 과거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구나.

찬찬히 둘러보며 내 삶과 비교해보고 싶다.

마석역 가까이에 있는 모란공원으로 걸어가 묘역을 둘러보았다.
엄청나게 많은 묘소가 있구나. 놀랍다.

제일 먼저 피천득 시인의 묘를 찾아갔다. 교과서에서 읽은 수필들
흥사단 근무하며 전화로 인사 나눴던 과거를 회상하며 "눈처럼 왔다가 깃털처럼 갔다"는 묘비
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

가족묘원을 둘러보고 노희찬 국회의원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21 23살에 죽은 사회운동가들
의 묘앞에 잠시 머물며 참배를 하였다.

묘가 많으니 관리가 안되는 곳이 꽤보이고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안내문도 여러곳에 있구나.

산 사람의 목구멍 관리도 힘든데 죽은 사람까지 챙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구나 땅도 좁은데 매장보다는 화장하여 수목장 처리가 좋을 듯...

난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죽으면 장기기부나 시신기부를 하여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

노희찬 선생에게 대표 묵념을 하며 당신 같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내가 오늘과 같은 발전
된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나 남은 삶을 의미있게 살겠노라고 홀로 다짐하다

뜻깊은 하루 여행이구나.

